

빵·아이스크림 등 주요 가공식품 75% 가격 ↑

김밥 3254원·비빔밥 1만577원 등 외식비도 상승

이달 물가 3.5~3.6%전망…년 달 연속 3%대 전망

최근 주요 가공식품 75%의 가격이 상승하고, 빵·아이스크림·라면 등 서민과 밀접한 품목의 물가 상승이 이어져 서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대표적 외식 품목인 김밥과 비빔밥 가격도 전달보다 상승했다.

14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통합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가공식품 32개 품목 가운데 24개 품목이 전년 대비 가격 상승을 보였다. 그 가운데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품목이 절반이 넘었다.

품목별로 보면 햄 10g당 가격이 전년보다 37.7% 상승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100g 기준 케첩(36.5%)과 된

장(29.6%)도 그다음으로 증가폭이 컸다.

그 외 간장(100㎖·28.6%), 참기름(10㎖·27.8%), 카레(10g·25.4%), 마요네즈(100g·24.1%) 등이 뒤를 이었다. 100㎖ 기준 생수와 우유도 각각 16.9%, 13.8% 상승했다.

지난달 빵, 설탕, 아이스크림, 커피 등 서민 밀착 가공식품 물가가 꾸준히 고공행진 중이다.

정부는 주요 농식품 28개 품목의 전달자를 지정해 가격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상시 점검에 들어간 가공식품 9개 품목은 빵, 우유, 스낵 과자, 커피, 라면, 아이스크림, 설탕, 식용유, 밀가루다. 이들은 물가 가중치가

높고 소비자 체감도가 크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설탕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17.4% 상승했다. 아이스크림은 15.2%, 커피는 11.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밀가루와 라면은 전년 대비 둔화했으나 2년 전보다 각각 36.5%, 10% 올랐다. 빵은 전년 대비 5.5% 상승했는데, 2년 전과 비교하면 21.6%나 증가했다.

정부가 가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외식 품목 5가지는 햄버거, 피자, 치킨, 냉면, 김밥이다.

이 가운데 김밥은 지난달 소비자 가격이 전달보다 상승했다.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기준 지난달 김밥 가격은 3254원으로 전달(3215원)보다 올랐다. 김밥은 지난해 8월(3046원) 처음 3000원선을 넘은 후 꾸준한 오름세를 유지 중이다.

비빔밥도 같은 기간 1만500원에서

1만577원으로 인상됐다.

나머지 6개 품목의 외식비는 지난 9월과 동일했지만 여전히 체감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삼겹살 1인분(200g)은 1만9253원에 달했고, 삼계탕은 1만6846원, 냉면은 1만1308원으로 집계됐다. 갈국수는 8962원, 김치찌개 백반은 7846원, 자장면 7069원 등이다. 이 가운데 1만원 안에 먹을 수 있는 메뉴는 김밥과 김치찌개 백반, 자장면, 갈국수 밖에 없다.

물가상승률이 3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물가도 3.5~3.6%를 찍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민 체감 물가 부담이 줄지 않고 있어 물가 인상의 한 축인 공공요금과 관련한 인상도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9월 광주·전남 9월 제조업 생산 감소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최근 실물경제 동향 발표

9월 중 광주·전남 제조업 생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실물 경제지표는 지역별로 엇갈렸다.

1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최근 광주·전남지역 실물 경제 동향에 따르면 9월 중 광주지역 제조업 생산(-1.9%,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이하 동일)은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감소했으며 전남지역(-0.7%)은 제 1차금속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9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광주(-1.4%)는 감소했고 전남(4.0%)은 증가했다. 신용차 신규등록대수는 광주(-0.5%)와 전남(-6.8%) 모두 감소했다.

10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0.5로 전달(92.5) 대비 2.0p 하락했다.

9월 중 기계류 수입액은 광주(-

5.5%)와 전남(-28.9%) 모두 감소했다. 9월 중 건축착공면적은 광주(481.9%)는 증가한 반면 전남(-12.3%)은 감소했다.

건축허가면적은 광주(-90.4%)와 전남(-44.0%) 모두 감소했다. 미분양아파트는 광주(573호→573호)는 전월과 동일했고 전남(3591호→3600호)은 전월 말 대비 증가했다.

9월 중 수출은광주(6.0%)는 증가, 전남(-6.3%)은 감소했다.

수입은 광주(-46.1%)와 전남(-15.6%) 모두 감소했다. 10월 중 소비자물가는 광주(4.0%)와 전남(3.8%) 모두 상승폭이 확대됐다.

9월 중 아파트 매매가격은 광주는 포함, 전남은 하락했으며 아파트 전세가격은 광주와 전남 모두 포함으로 나타났다.

/권형안 기자

고용부, 대유위니아 협력업체에 지원금

고용장관, 광주 하남산단서 간담회…지원책 제시

“모든 정책 수단 동원해 협력사 위기 지원할 것”

정부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유위니아의 협력업체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오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을 찾아 협력업체 간담회를 열고 피해상황을 직접 점검한 뒤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위니아전자 등 대유위니아그룹 4개 계열사가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맞은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일 기준으로 이들 계열사 관련 피해가 접수된 협력사는 총 325개사로, 미회수 대금은 총 8000억원에 달한다.

고용부는 이 위기가 임금체불이나 고용불안 등 근로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과 체불사업주 용자제도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를 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일 최대 6만 6000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체불사업주 용자제도는 사업주당 1억

5000만 원을 한도로 담보 연 2.2%(신용 연 3.7%) 금리로 용자를 제공하는 제도다.

또 부득이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대지급금 지급을 통해 체불근로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국민들이 고용불안이나 임금체불 등에 내몰리지 않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관계부처, 광주시 등과 협력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영난에 처한 협력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소수 근로자들의 고용유지와 생계 지원으로 민생현안을 해결해나 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광주시를 이달 중으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긴급경영인전자금 등 정책 자금 지원도 하기로 했다.

광주시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확보한 50억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하고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조치 등을 이어가면서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해나 가겠다는 방침이다.

/권형안 기자

9월 시중에 풀린 돈 18조1000억원 ↑

낙달 연속 상승…9월 광의통화(M2) 평잔 3847.6조원

시중에 풀린 돈이 넉 달 연속 늘었다. 주식시장 관망세와 금리 상승 기대에 저축성 예금에 자금이 쏠리면서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3년 9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9월 M2(광의통화, 평잔)는 3847조 6000억원으로 전월(3829조5000억원)에 비해 18조1000억원(0.5%) 증가했다.

지난 1월까지 감소했던 M2는 2월 0.3% 반등했다가 3월 0.2% 줄어든 이후 5월까지 1999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인 바 있다. 이후 6월(0.3%)과 7월(0.7%), 8월(0.2%)에는 상승세를 보였다.

전년동월대비로는 25% 늘어, 전월 증가폭(2.2%)보다 확대됐다. M2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2021년 12월(+13.2%) 이후 17개월 연속 둔화세를 보이다가 6월 상승 반전한 바 있다.

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M1)에 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등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통상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지표다. 금융상품별로 보면 요구불예금

(-5조2000억원), 금전신락(-3조 6000억원)이 감소한 반면, 수익증권(9조4000억원), MMF(8조1000억원),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3조 6000억원), 시장형상품(3조4000억원) 등은 증가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16조9000억원), 기타금융기관(6조원)이 늘었고, 기업과 기타부문은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M2 증가세는 주식시장 관망세와 금리 상승 기대로 투자 대기 자금이 유입된 영향이 크다.

한은 관계자는 “수익증권은 금리 연동형 ETF 등 파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를 중심으로 증가했고, MMF와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은 투자 대기자금이 유입되면서 증가 전환했다”면서 “시장형 상품은 금융기관이 적극적인 자금조달 노력에 양도성에증거서를 중심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단기자금 지표인 M1은 전월대비 1조2000억원 감소한 1184조9000억원으로 2달 연속 감소했다. 다만 전월(-2조8000억원)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축소됐다. 앞서 7월 M1은 역대 최장기간인 14개월만에 증가 전환한 바 있다.

전월 동월대비로는 10.0% 하락해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포스코홀딩스, 캐나다서

유전염수 리튬 확보나서

포스코홀딩스가 캐나다 앨버타주 투자청(Invest Alberta Corporation, IAC)과 협력해 유전염수(Oil-field brine) 리튬 확보에 나섰다.

포스코홀딩스와 IAC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포스코홀딩스 이경섭 이차전지소재사업팀장(전무)과 릭 크리스티안세(Rick Christiaan) IAC CEO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포스코홀딩스는 앨버타 내 유전염수 리튬 자원 개발에 협력할 파트너사를 탐색하고, 리튬 개발이 용이한 광구를 찾아 투자를 검토하는 한편, 최적의 리튬 추출 상용화공정을 실증하는 등 유전염수 리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IAC는 포스코홀딩스의 앨버타주 내 투자 과정에서 행정 지원을 하고, 유망 사업자와의 가교 역할을 하며 자원 개발 관련 정보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울 예정이다.

포스코홀딩스는 현재 건설중인 총 5만톤 규모의 염수리튬 1, 2단계 상용화 공장과 광석리튬에 기반한 연산 4만 3천톤 규모의 수산화리튬 공장에 이어 캐나다 광물·금속 계획(CMMP) 등 전략광물 투자 활성화 정책에 연계해 캐나다 리튬사업을 추진하는 등, 2030년 리튬 42.3만톤 생산능력을 보유한 글로벌 Top 3를 달성, 이차전지소재사업 Full Value Chain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광양만권경제청

항만물류 활성화 방안 모색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0일 광양 락희호텔에서 ‘항만물류분야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계 및 기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물류 및 항만 분야의 전문가들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내외 컨투어 신규 개장 등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세에 대한 대처 방안 및 투자유치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광양항 물동량 창출을 위한 이차전지 및 화학·소재부품 관련 등 고부가가치 제조기업 유치 및 액터·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여수광양항 유관기관의 다각적인 마케팅 전략과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상락 광양만권경제청장은 “이차전지 및 석유화학제품 관련 기업 유치와 물동량 창출 및 국내외 해운물류 포럼 참가 등 적극적인 합동마케팅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능 앞둔 유통업계는 ‘수험생 마케팅’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수험생을 위한 마케팅을 하고 있다.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편의점에서 합격 기원 참쌀떡이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나주시, 세지농협멜론공선회·알곡영농조합 ‘대통령 표창’

농업유통·식량산업발전 분야 각각 수상



나주시 농업 발전과 대표 농산물 브랜드 육성에 힘써왔던 농업인들의 공로가 대통령 표창이라는 결실로 돌아왔다.

전남도 나주시는 지난 10일 수원시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세지농협 멜론공선회, 알곡영농조합법인

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농업인의 날은 1996년부터 매년 11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농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있다.

나주 세지멜론은 전체 재배면적 62ha, 70여농가에서 연평균 약 3200톤이 생산된다. 연평균 기온이 15도(℃)로 적당하고 일조량이 풍부해 멜

기아, 온실가스 감축 위해 ‘다자 협력’ 나섰다

농식품부·신한은행·그리너리와 4자 업무협약



기아가 민·관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차세대 자원 순환 방법으로 평가

받는 ‘바이오차(Bio-char)’ 프로젝트

투자를 통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ESG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아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

포구 63빌딩 사이프러스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신한은행, ESG 스타트업 ‘그리너리’와 함께 농·축산 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기아 정희철 기업전략실 전무와 농식품부 김정국 축산정책국장, 신한은행 조정훈 ESG본부장, 그리너리 황유식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가축분뇨 정화처리·에너지화, 스마트 축산 등 농식품부의 지속 가능한 저탄소 농·축산 생태계 기반 조성에 각 기업들이 협력하기로 뜻을 함께 하면서 이뤄졌다.

기아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차 생산 프로젝트를 10년간 지원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의성군의 축분자원화 실증 시범 사업이다.

/권형안 기자